◇독일 함부르크에서 출발한 행창스님의 유라시아 자전거 횡단은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고 시작됐다.

'참나' 찾기 자전거 '구도' 여행

행창스님 유라시아 대륙횡단 대장정 올라

독일-터키-실크로드-중국-북한-서울

이달 1일 출발 1년간 2만km 달려

'화해' 메시지 전파… '붓다뉴스' 중계

5월 1일 부처님오신날,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유학중인 행창(行昌) 스님의 유라시아대륙 자전거 횡단 대장정이 시작됐다.

동서 이념대립과 갈등의 상징 베를린 장벽에서 출발해 내년 부처님 오신날 북한을 거쳐 서울에 도착하는 이 대장정은 행창스님이 떠나는 구도의 길이다. "참된 자아인 달마를 찾아 나서는 여정 속에서 자기 성찰, 자기 극복, 자기 완성을 추구하기 위해 이번 대장정을 시작한다"는 행창스님. 자전거 여행길이 곧 수행의 길이라 여기는 스님은 이번 여정을 통해 자신 속에 내재해 있는 참 인간상을 발견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여기고 있다. 또 하나 지구촌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마음 속에 상호 이해의 씨앗을 뿌려 전법의 과제로 삼는 것도 스님의 염원이다.

독일 베를린에서 출발한 것은 이 곳 역시 동서의 이념대립과 갈등을 이기고 통일을 한 곳이기에 남북통일의 염원을 되새기기 위해서이다. 스님은 동구유럽을 돌며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체코, 헝가리의 사회변화를 관찰할 계획이다. 또 수정사회주의체제로 변하고 있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에서는 체제변화에서 오는 갈등과 변화의 양상을 살살이 들여다보고, 민족 · 종교 갈등으로 전쟁 속으로 내던져졌던 유고 연방지역에서는 전쟁의 상흔을 그 지역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연구해 보겠다는 것이 행창 스님의 각오다.

특히 동서문화 교류의 역사적 현장 실크로드, 삼장법사 현장스님과 신라 혜초스님이 지났을 이 길이 자전거를 탄 행창스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구도길이 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베를린, 체코의 프라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고 베오그라드, 불가리아의 소피아를 거쳐 7월 터키의 이스탄불, 앙카라, 8월 그루지아의 트빌리시,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보트에 몸을 싣고 카스피해를 건너 9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에 도착하게 된다. 10월에는 타지키스탄, 파미르고원을 거쳐 11월 중국 카슈가르, 타클라마칸 사막, 12월 투르판을 지나 2002년 1월 1일 장안에서 베이징까지 한달을 계획하고 있다. 이후 북한 통과가 승인될 경우, 신양에서 백두산으로 들어가 신의주, 평양, 판문점을 거쳐 부처님 오신날 서울에 도착하게 된다. 북한통과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는 텐진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와 서울에 도착하게 되는 일정이다.

5월 1일부터 2002년 1년 간 약 2만km의 대장정을 계획하고 있는 행창스님의 구도 여정은 인터넷 일간 붓다뉴스(http//www.buddhanews.com)가 생생하게 중계한다. 2주에 한번 스님이 현지에서 보내주는 생생한 여행기를 사진과 함께 연재할 계획이다.

행창스님은 현재 독일 함부르크대학 인도학 · 티벳학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미 92년에 일본열도 자전거 횡단을 성공했고 97년에는 인도 아대륙 오토바이 왕복횡단도 해낸 경력이 있다. 지난해에는 중동을 자전거로 횡단하는 등 15년여 걸쳐 전 세계 50여개국을 무대로 여행과 수행, 학업을 하나의 화두로 삼고 있는 젊은 구도자의 새로운 도전이 어떻게 회향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가야산 관통로 즉각 중단"

조계종,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요구 탄원서

경남도 · 지역환경연합도 반대 성명

국립공원 가야산을 관통하는 관광도로 건설에 대해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은 9일 '가야산 국립공원 관통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 집행정지 가처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창원지방법원 행정 다부(부장판사 박기동)에 제출하고, 경상남도는 불법적인 가야산 관통 순환도로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은 탄원서에서 "문제의 도로는 가야산의 허리를 자르고 터널을 뚫어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의 증가로 해인사 팔만대장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민족의 성지인 해인총림의 수행도량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43개 지역 환경운동연합도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가야산 관통 순환도로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 이뤄지는 난개발의 전형"이라면서 "해인골프장 건설보다 더 큰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도로건설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10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최근 해인총림 산하 가야산 환경위원회가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노인 1천명 초청잔치

부산불교회관 1돌 기념

부산불교회관(관장 정여스님)은 11일 시청 옥외공연장에서 어르신 1,000여명과 자원봉사자 2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불교회관 개관 1주년기념 제1회 경로효도 큰잔치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안상영 부산시장, 설동근 부산교육감, 강선태 부산불교신도회장, 이병곤 부산경찰청장, 이하우 부산불교교육대학장 등 지역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문화공연과 점심 공양, 기념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김재경 기자

미륵부처님 사바번뇌 씻어주소서

충남 공주 성곡사(주지 관묵)는 13일 법주사 율주 혜정스님의 증명으로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와불 및 미륵불상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성곡사 관묵스님은 "37m 청동 와불과 32m 미륵부처님을 점안,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우리 민족의 자성의 계기로 삼아 지역 · 계층간 화해와 화합을 도모하는 미륵기도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041)853-3355 김재경 기자

산사의 멋 체험해 보세요

전남도 12개 사찰 연계 관광코스 개발

전남도내 12개 사찰에서 '산사(山寺)체험하기 관광코스'가 개발, 운영된다.

전남도는 7일 "사회단체나 가족단위 관광객이 신록이 우거진 산사에서 참선 · 예불 · 경전강의 등 수행도 하고 1~3일 정도의 일정으로 주변 관광지도 둘러보는 관광여정을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관광전남 홈페이지(www.provin.chonnam.co.kr)에 숙박 등이 가능한 송광사 등 도내 12개 사찰의 위치와 유래, 문화재 보유 현황, 주변 관광지,시설현황 등의 자료를 올릴 계획이다. 산사체험에 참여하는 사찰은 여수시 흥국사 · 용문사, 순천시 송광사 · 동화사, 나주시 불회사, 구례군 화엄사, 보성군 대원사, 해남군 미황사, 영암군 도갑사, 함평군 용천사, 장성군 백양사, 진도군 악사사(주암사, 천종사) 등 12개 사찰이다.

전남지역은 국내사찰 25대 본산중 백양, 화엄 ,송광, 선암, 대흥사 등 5대 본산과 9산 선문중 보림사, 쌍봉사, 태안사 등 3대 선문이 남아있는 등 불교 성지가 산재해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푸르름이 짙은 산사에서 주말을 이용해 도심의 찌든 때를 벗겨내는 명상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062)607-4992 김재경 기자

무위사 아미타 삼존불등 문화재청 보물지정 예고

전남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에 소장된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3구와 아미타후불벽화, 백의관음도, 벽화 29점이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문화재청은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금강경삼가해, 예념미타도량참법 등 10건 40점을 10일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이들 문화재는 30일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된다. 권형진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월정사 진신사리 공개

제4교구 본사인 오대산 월정사(주지 현해)는 23일부터 6월20일까지 윤4월 한달간 부처님 진신사리(문수동자 복장사리) 및 국보 제48호 팔각구층석탑 유물(은제도금여래입상과 다라니와 사리함 등) 친견대법회를 개최한다. (033)332-6644

전태종

구인사 광명당 기공식

총본산 구인사내 광명당 기공식을 14일 도용 종정 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종단스님들과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광명당은 대조사전 아래에 있는 광명당과 판도암을 합해 대조사전 앞에 넓은 광장을 마련하기 위해 한 건물로 재건축하는 것이다.

진각종

종조 탄생절 봉축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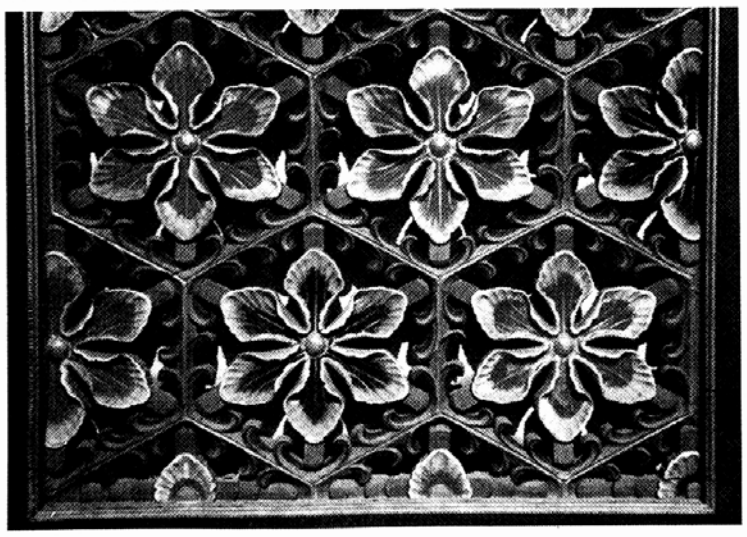
종조 회당대종사 탄신 99주년을 봉축하는 헌화식(사진)이 10일 서울 총인원내 종조전에서 각해 총인과 성초 통리원장, 일정 교육원장을 비롯한 서울교구 스승과 신교도, 위덕대 손제석 총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울릉도 1호 경승 탄생

울릉군 여래심인당 주교 향덕정사가 4월 28일 울릉경찰서(서장 김욱동) 1호 경승으로 임명됐다. 울릉경찰서 최초로 경승에 임명된 향덕 정사는 "경찰관들의 불심 고취와 포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권 동신전통목공
주요 공사사찰
직지사 . 봉암사
각화사 . 대승사
해인사 . 출서사
윤필암 . 김용사
법주사 . 운문사
봉녕사 . 용문사
서광사(캐나다)
한마음선원대구지원
찾아오시는길
↑ 추풍령I.C
동신전통목공
1Km
← 직지사
직지사 검문소
김천시내 ↓
사찰문전문
대표 백 영 목 합장
경북 김천시 봉산면 태화동 523번지 (직지사 검문소 위)
전 화 : (054) 432-1312
공 장 : (054) 432-8121
휴대폰 : 011-535-7000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서울 대전 대구 전주 40분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 063)433-2900,0303
432-0652,0072